

콕스 피살...EU 탈퇴 42%·잔류 45% ‘반전’

〈英 노동당 하원의원〉

사건 뒤 브렉시트 반대 상승세

현지 주요 언론도 찬반 나뉘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캠페인을 펼친 영국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이 피살된 후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9일(현지시간) 기준 영국 여론은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로 동률이다.

지난 10~16일 발표된 여론조사 9건 중 7건에서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우세였으나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난 16일 이후 여론조사 2건에서 모두 브렉시트 반대 우위로 표심이 돌아서서 투표 향방이 안갯속에 빠졌다.

여론조사업체 세비이션이 지난 17~18일 성인 1001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EU 잔류 지지 응답이 45%로 EU 탈퇴 지지(42%)를 3%포인트 앞섰다. 같은 업체가 피살 전날인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EU 잔류 지지가 42%, EU 탈퇴 지지가 45%로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선데이타임스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실시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EU 잔류 44%, 탈퇴 43%로 잔류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콕스의 피살 소식을 전해지자마자 조사에 응했다. EU 탈퇴를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46%로 잔류(39%)를 7% 포인트 앞섰던 지난 13일 유고브 조사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영국 최대 배팅업체 베타페어는 19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EU 잔류로 나올 가능성을 지난 16일 오전(59%)보다 10%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19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영국 유럽연합 잔류 운동에 참가한 커플이 유럽연합 국기(왼쪽)와 영국 국기 모양을 얼굴에 그리고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인트 오른 69%로 내다봤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존 커티스 스트래스클라이트대학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게 콕스의 피살을 계기로 불거진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 대한 비판 여론의 영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국 언론은 두 편으로 갈라져 공개적으로 찬반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EU 잔류를 지지한 언론은 더 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일요판 메일온선데이,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 등이다.

이들 언론은 EU에 남아 다른 유럽 국가와 협력하는 게 영국의 자유, 안전, 번영을 위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인디펜던트는 “EU 잔류에 투표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뜻한다”며 “EU에 권한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세계화 시대 지구촌에서 협력해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 선, 선데이타임스, 선데이 텔레그래프 등은 독자들에게 EU 탈퇴에 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EU의 횡포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하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게 중앙집권화가 심해지는 EU에 개혁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EU를 탈퇴하면 영국 정부와 의회가 더는 자유로운 노동자 이동과 이민 금지 등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날짜	찬성	반대
18일	세비이션 42	45
17일	오피니움 44	44
	유고브 44	42
16일	브렉시트 반대 캠페인 피온 콕스의 피살의 충격에 사망 유고브 43	44
15일	BMG 43	46
	세비이션 45	42
14일	입소스 49	43
13일	TNS 47	40
	유고브 46	39
	ICM 49	44
	ICM 50	45
	콕스 45	46

자료/파이낸셜타임스(FT) 여론조사 결과 집계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후한 말 무인 원소

원소(袁紹, ?~202)의 자는 본초이며 여남군 여양현에서 태어났다. 고조부 원안 이후 4대가 모두 삼공의 지위에 있던 명문가 출신이다.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 젊어서부터 명성이 높았다. 후한 말은 환관이 정권을 좌지우지한 난세였다. 황제 지위조차도 환관 집단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환관의 전횡을 비판해 환관들의 미움을 받았다. 환관 조총과 장양은 그에 대해 “저 아이가 끝내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모르겠다”며 크게 경계하였다. 영제가 죽자 그의 아들 유비가 즉위하니 소제다. 소제의 외삼촌 하진이 실력자가 되었다. 하진은 환관의 우두머리 견책을 주살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하진을 설득해 환관 주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비밀이 새나갔다. 궁지에 몰린 환관들은 하진을 공격하였다. 참모 저수는 “우리 군은 조조군만큼 용맹하지 못하고, 조조군은 재물에서 우리와 비교가 되지 못하니 지구전을 펴 시간을 길게 끌 것”을 건의했다. 참모 전풍도 “조조는 군대를 잘 다루어 변화무쌍한 전술을 구사하므로 지구전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간언은 묵살되었다. 조조군은 군사도 적고 양식도 모자라게 되자 순유의 계책을 받아들여 원소군의 식량 저장지인 오소를 기습했다. 원소군은 기습에 크게 동요되었고 이 기회를 노려 조조군은 맹공을 퍼부어 승리를 거두었다. 조조는 당초 세력이 월등한 원소와의 싸움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순유는 “원소의 군대는 숫자만 많을 뿐, 기용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군법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며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조는 “순유의 눈은 정확하다. 원소의 야망은 반드시 박살내고 말겠다”며 관도대전을 결심했다.

오만한 ‘금수저’... ‘흙수저’ 조조에 참패

중으로 불러들여 살해했다. 그는 사촌 동생 원술 등과 함께 2000명이 넘는 환관을 죽였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갑속 지방의 동탁이 정권을 잡았다. 그는 소제를 죽이고 동생 유희를 옹립하니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되었다. 소제를 폐하는 일에 반대한 원소는 기주로 도망쳤다. 반 동탁 동맹을 결성하고 그 맹주가 되었다. 191년 기주를 지배하던 한복을 협박해 기주목의 자리를 차지했다. 192년 실력자 동탁이 부장 여포에게 살해되자 장안은 혼란에 빠졌다. 헌제는 장안을 탈출하여 낙양으로 향했다. 참모 관도는 어려움에 처한 헌제를 영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탁이 임명한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고 후한 황실도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해 영입을 반대했다. 이틈을 노려 조조는 참모 순유를 영입해 헌제를 영입하고 수도를 허도로 옮겼다. 조조는 이후 황제를 옆에 끼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손찬을 패사시킨 원소는 기주, 유주, 청주, 병주 4군을 거느려 중원 최마에는 수 많은 수장이 거처했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37세인 라지는 100여 년 만의 최연소 로마 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다. /연합뉴스

日 초등생 시험 “독도 불법점거 나라는?”

답에 ‘대한민국’ 유도

일본 초등학교 대상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제가 출제됐다. 20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중학교 입학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나라를 택하라”는 4지 선다형 문제가 등장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문제지에는 “지도에 C로 표시된 국가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음

에서 하나 고르라”는 질문과 함께 4가지 답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적시됐다. 이 문제를 낸 출판사는 동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결국 아베 정권의 교육 방침과 직결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 영향으로 2014년 검정을 통과해 작년부터 사용된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로마 2500년 만의 첫 여성시장 탄생

제1야당 후보 라지 당선

이탈리아 로마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 이탈리아 제1야당 오성운동(M5S) 진영으로 로마 시장에 출마한 비르지니아 라지(37·사진) 후보는 19일(현지시간) 주요 도시 수장을 결정짓는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당선됐다. 오성운동은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좌파와 우파라는 기존 정당 체계를 부정하며 2009년 창설한 정당이다. 오성(五星)은 물, 교통, 개발, 인터넷 접근성, 환경 등 정당의 5가지 주 관심사를 뜻한다. 이탈리아 내부부 발표에 따르면 99.8% 진행된 개표 결과 라지 후보는 67.2%의 득

표율로 32.8%를 얻은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로 압도했다. 로마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칠레 산티아고에 이어 여성을 시장으로 둔 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마는 또한 도시가 처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2500년 전 이래 처음으로 최초의 여성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로마에는 수 많은 수장이 거처했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37세인 라지는 100여 년 만의 최연소 로마 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다. /연합뉴스

숙박 (무인텔 / 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은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